

소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위원장에 (주)체리부로 이현택 상무(유통), (주)마니커 최충집 상무(계열생산) 선임

본회는 지난 4월 8일과 22일 잇따라 유통 및 계열생산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유통위원회 위원장에 (주)체리부로 이현택 상무를, 계열생산위원회에는 (주)마니커 최충집 상무를 선임했다.

앞으로 각 위원회는 닭고기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단계별 과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표준용어 제정에 나서게 된다.

특히 계열생산위원회는 향후 육계 생산성 향상 및 생산수급조절, 농가협의회 구성 등과 관련된 사안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는 육계 및 계육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유통위원회 명단

<위원장>

<위원>



(주)체리부로 이현택 상무



(주)하림 김동관 상무



(주)마니커 김충집 이사



(주)동우 김기수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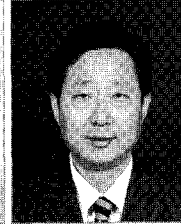
(주)울품 김기수 부장



(주)해마로식품 지혜균 상무



성화식품(주) 오희안 이사



한강CM(주) 최동훈 부장



(주)매산씨앤에프 한영수 상무



(주)일조코리아 명재정 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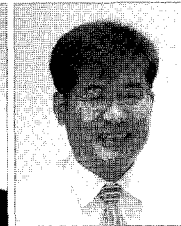
계열생산위원회 명단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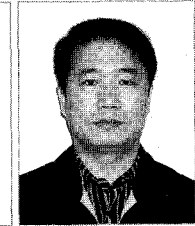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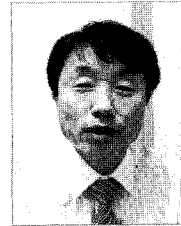
(주)마니커 최충집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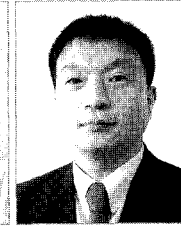
(주)하림 정문성 상무



(주)동우 두광수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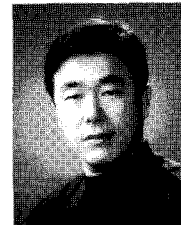
(주)체리부로 노비봉 이사



(주)울품 신계돈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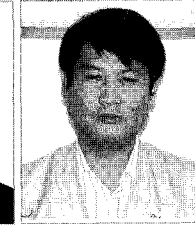
(주)해마로식품 노웅식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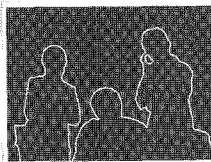
성화식품(주) 정규성 부장



한강CM(주) 이종길 고문



(주)매산씨앤에프 이윤구 부장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방향에 관한 회의 참석

농가, 계열업체, 정부 등 모여 다양한 의견 제시

본회와 회원사는 지난 4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방향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계열화 사업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허태웅 축산경영팀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계약사육농가는 사육시설면에서 10~15%만 현대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시설 개보수에 정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 개보수비는 7년 이내 2,600억원이 집행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FTA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가 닭고기이며, 정부에서도 양계(육계)산업이 경쟁력이 있도록 지원할 것이므로 좋은 의견이 나와야 할 때이며, 업계내에서 합의를 못하면 정부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EU FTA대책(안)으로 대형 닭 생산 유도, 부분육 상품개발지원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 회원사는 병아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축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가축 계열화 사업의 근거 신설 등 건의

본회는 축산법 개정시 금년 상반기 중 실시예정

인 연구용역(육계 계열화 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통해 시장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 계열화 생산의 근거(계열화 사업의 개념, 계열업체의 권리·의무 및 준수사항)와 축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유통협약 제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철새도래지의 저병원성 AI 검출 관련

방역조치 강화 알림

AI 상시방역에 따른 경로별 예찰검사의 일환으로 수의과대학(1차 검사) 및 수의과학검역원(확진 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철새 도래지 등 야생조류 분변검사 결과, 지난 4월 6일 충북 음성소재 양덕 저수지의 철새 분변시료에서 저병원성 AI(H5N2)가 검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철새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 등으로 인한 AI 발병위험의 사전 차단 등을 위해 각 시·도, 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방역조치 및 관리강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회 회원사에서 철새도래지 방문금지(불가피한 철새도래지 방문 시 소독 철저), 계사에 철새 등 야생조류 접근방지를 위한 방조망 및 차단막 설치,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강화, 농장 출입통제,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철저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